

[ 기획 ]

■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특별 인터뷰

“80년 군부세력이 언론 장악, 미국 지지로 조작”



■ 버시바우는 누구

지난 2005년 9월 부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국제 외교가에서 '거물'로 평가받는다. 미국 대사 가운데 최상위권인 나토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버시바우 같은 거물급 인사...

駐 나토·러시아 대사 거친 거물
동북아 질서 재편 기대 '한 몸'

그는 이후 소련 연방의 마지막 기간 동안 국무부 소련 과장을 지냈으며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유럽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특히 대(對) 유럽 관계에 관한 미국 정책의 틀을 확립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7년에는 평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윌리엄 코헨 전 국방 장관으로부터 초대 '조셉 J. 크루젤상'을 받았으며 이후 98년부터 2001년까지 나토 대사를 지내면서는 나토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국무부 우수 외교관상'을 수상했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콘스탄티나 라이스미 국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과 함께 동유럽 및 러시아 전선가로 인정받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부임 이후 북한을 '범죄국가'로 부르는가 하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금강산, 개성공단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북 강경파 및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강성이라고 보다는 원칙적이며 솔직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속 공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인 리사 버시바우와는 지난 76년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는 18일로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는다. 많은 광주시민들과 한국 국민들은 당시 미국 정부가 군부의 광주 진압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의 자세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나서 당시 군부에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충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체를 계속적으로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인 성명서로 발표했으나 군부에 의해 검열을 당해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당시 군부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였는가.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 장군에게 인간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민주화를 위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히, 전두환 군부 세력은 한국 언론의 장악을 통해 마치 미국 정부가 (군부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따라서 (이 같은 언론 조작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당시 미국의 역할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20사단 등 전방의 군대가 움직인 배경은 미국이 방조 및 암묵적인 승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시 한미 연합사 체제 아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군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승인할 필요도 없었다. 당시 전두환 장군은 (군 이동과 관련) 미국에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통보만 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6자회담, BDA 문제, 한미 FTA,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등 각종 현안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은 격랑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전신직통통제권 회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기도 했다.
광주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대구)은 지난 4일 한미 FTA협정,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과 관련,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3사의 공통 질문과 각 사의 개별적 질문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광주일보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앞두고 당시 미국 정부의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미 FTA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강화될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어려운 논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한국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의회도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협정에는 앞으로 역외가공지역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떠한 매커니즘을 설치한다는 문구만 명시돼있다. 또한, 역외가공지역을 결정할 때 어떠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 즉, 개성공단이 됐던 다른 지역이 됐던 역외가공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한반도 비핵화 등의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합의한 것이다.
-북 핵 문제가 2·13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북한의 2·13 합의의 초기 단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BDA 자금 이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4월10일 현재 북한과 관련된 모든 BDA 계좌가 풀린 상태에 있다.
미국은 2·13 합의를 모두 지켰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합의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 손해 보는 측은 북한이다. 당장 5만 톤의 중유 공급 등 긴급 에너지 원조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제정될 더 많은 혜택도 지연되고 있다.
-북 핵 불능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핵 프로그램의 해체에 관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 지난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이러한 약속을 했었고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과 전 세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결국 북한과 전 세계의 관계를 바꿀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포용정책도 지지하고 있

北, 핵 프로그램 포기 늦어질수록 손해
한·미관계 공고...大選때 논란 안됐으면

다. 특히, 6자회담과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직결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하고 개방시킨다는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가져온다는 목적을 이룬다는 데에 같은 전략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의 즉각적인 목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이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에 앞서 6자 회담의 진전에 반걸을 뒤에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원칙을 표명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개혁과 현대화를 이끌어 낼 전략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으로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과 관련, 한국 국민들의 위로에 감동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가와 인종이 관련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번 일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에 대해 전망한다.
▲오는 22일은 한·미 외교관계의 125주년인 되는 날이다. 한·미 관계는 공고하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특히,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도 한·미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국 정치에 대한 견해는
▲1년 6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정치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며 특히 예측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미 관계가 정치를 넘어서는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며 특히, 대선 캠페인에서 한미 관계가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부산일보 박희만기자

5·18 희생자들이 한국 민주주의 토대 일궈
한미 FTA, 양국간 '윈-윈' 효과 가져올 것

-미국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미국은 전두환 장군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막을 입장이 못 됐다.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전두환 군부 세력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음은 모르지만 5·18 현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태는 당시 미국의 거듭된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행동한 당시 군부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5·18 국립묘지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감동을 느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기여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깔려졌다고 본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국간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공산품 관세 철폐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점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농산물 분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피터슨 대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GDP는 증가적으로 6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140억 달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또한, 한국도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고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전체적인 GDP는 증가적으로 200억 달러, 장기적으로 410억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국은 많게는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보도도 접한 바 있다.
-한국 국회 및 미국의 회 일각에서는 한·미 FTA 비준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비준이 당연히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비준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의 증진, 경제적 동반자적 관계는 물론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도

ALU-TEST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www.donga.tv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TOEIC강좌 퍼레이드!
www.donga.tv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월 78,000원
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